

석사학위논문

루터 음악의 고찰

- 교회음악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정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조 현 정

2003年 8月

석사학위논문

루터 음악의 고찰

- 교회음악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정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조현정

2003年 8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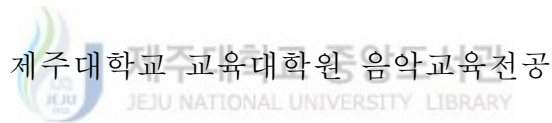
루터 음악의 고찰

- 교회음악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정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4월 일



제출자 조 현 정

조현정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7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국문초록>

루터 음악의 고찰
- 교회음악을 중심으로 -

조 현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지도교수 김 정 희

세계사의 흐름에 큰 변화를 준 것 중에 하나인 종교개혁은 단지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항거하는 일로 그친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예배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을 한 것이었다.

루터는 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해 나가면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누구나 노래 부를 수 있는 회중찬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이것은 코랄(Chorale)이라는 음악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종교개혁자로서의 루터보다는 음악가 루터, 교회음악 개혁자로서의 그를 재인식하고, 루터의 코랄이 개신교 교회음악으로서 지니는 의의와 음악사적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하여 II장에서는 루터의 교회음악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루터의 교회음악이 종래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음악에서 개혁되었다는 입장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음악-특히 그레고리안 성가(Gregorian chant)-을 살펴보고, 또 루터의 음악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되는 당시 독일 세속음악과 교회음악을 다루었다. III장에서는 종교개혁의 형성배경을 시대적 배경, 종교개혁의 배경, 음악사적 배경으로 나누어 연구하였고, IV장에서는 루터의 생애와 신학사상, 루터의 음악관, 음악교육, 루터의 음악인 코랄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하였으며, V장에서는 루터 음악의 의의와 영향에 대하여, 그리고 끝으로 그의 음악이 갖는 현대적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결론을 맺었다.

루터는 소수 특권층인 성직자와 훈련받은 성가대의 전유물이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음악을 일반 성도들에게 보편화 시켰고, 그 결과 회중찬송이 등장하게 되

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이전의 로마 가톨릭의 그레고리안 찬트 그리고 예로부터 독일에 전해지고 있는 민요와 가곡에서 예배에 적합한 것을 발췌하여 편곡하거나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 개신교를 위한 회중찬송, 즉 코랄을 만들었다.

코랄은 교회 음악의 대중화와 만인사제론의 실현이었으며 회중과 기독교를 밀착시킴으로 개신교 교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후세의 작곡가들에게 정선율을 제공해 줌으로써 코랄 칸타타, 코랄 모테트, 코랄 전주곡 등의 교회음악과 오르간곡 등, 여러 가지 양식의 새로운 교회음악을 탄생시켰다는데 크나큰 의의가 있다.

그는 음악의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신학사상인 성서의 절대 우위성, 은총에 의한 구원관, 만인사제직을 강조함으로써 그 시대 정신을 이끌어 나갔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 교회 안에서도 찬송에 대한 성도들의 다양한 욕구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루터처럼 음악을 통하여 시대적 정신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교회 음악인의 자세와 노력은 하나의 소명이며, 그에 따라 루터 음악에 대한 고찰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 본 논문은 200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II. 종교개혁 이전의 음악	4
1. 로마 가톨릭의 교회 음악	4
2. 독일의 세속 음악	10
3. 독일의 교회 음악	13
III. 종교개혁의 형성 배경	15
1. 당시의 시대적 배경	15
2. 종교개혁의 배경	24
3. 음악사적 배경	25
IV. 루터의 생애와 음악	28
1. 루터의 생애와 독일어 성서 번역	28
2. 루터의 신학 사상	32
3. 루터의 음악	35
V. 루터 음악의 의의와 영향	52
1. 의의	52
2. 영향	53
VI. 결론	61
참고문헌	65
Abstract	68

도 표 목 차

<도표-1> 악보. 교회선법	9
<도표-2> 악보. 내주는 강한 성이요	45
<도표-3> 악보. 새 노래를 부르자	46
<도표-4> 악보.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노라	47
<도표-5> 악곡 형식	51
<도표-6> 중세의 미사전례와 루터의 예배순서 비교	55

I.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역사적으로 음악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원시인들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여러 형태의 악기나 음악을 묘사하는 벽화, 생활 유품 등을 토대로 그들이 생활 속에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음악이 나타났다고 본다. 시간이 좀더 지나면서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는 신에게 드리는 종교의식을 위해서, 축제나 오락을 위해서, 때로는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음악을 원했고 점차적으로 종교와 음악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오늘날 서양음악의 역사를 보더라도 종교적 의식과 음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 중에서 기독교 음악은 서양음악에 큰 영향을 주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컸던 개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16세기 마르틴 루터 (Martin Luther , 1483-1546)에 의한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무명의 한 젊은 신학자였던 독일의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정오 경에 '95 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Wittenberg)교회 정문에 붙임으로서 종교개혁 운동이 역사의 문을 열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은 세계사의 흐름에 큰 변화를 준 것 중에 하나이며 당시의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강한 자극을 주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단지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항거하는 일로 그친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회중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예배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을 한 것이었다.

루터는 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해 나가면서 그 당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누구나 노래 부를 수 있는 회중 찬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의 신앙과 음악에 대한 견해는 신학적 음악관으로 형성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악적 소양을 바탕으로 코랄(Chorale)이라고 하는 하나의 음악적 형태를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본 논문은 루터의 음악을 고찰함으로써 종교개혁자로서의 루터보다는 음악가 루터, 음악 개혁자 루터로 재인식하고 루터의 코랄이 개신교 교회음악으로서 지니는 의의와 요한 세바스찬 바하(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와 같은 음악의 거장을 탄생시키는 음악사적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연구를 시작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먼저, 이 연구의 범위를 루터의 종교개혁 과정 및 그의 교회음악 부분을 중심으로 한정하였다.

종교개혁을 전체적으로 볼 때 존 칼빈(John Calvin)도 그 한 축을 이루었으나 여기서는 루터의 활동에 국한하였고, 종교개혁과정에서 신학사상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교회음악 개혁자로서의 그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했다.

II장에서는 루터의 교회음악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루터의 교회음악이 종래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음악에서 개혁되었다는 입장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음악-특히 그레고리안 성가(Gregorian chant)-을 살피고 또 루터의 음악

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되는 당시 독일 세속음악과 교회음악을 다루었다.

Ⅲ장에서는 종교개혁의 형성배경을 시대적 배경, 종교개혁의 배경, 음악사적 배경으로 다루었고,

Ⅳ장에서는 루터의 생애와 신학사상, 루터의 음악관, 음악교육, 루터의 음악인 코랄의 발생에 대해 약술하였고, 코랄의 음악적 특징을 가사·리듬·선율·화성·선법성·악곡형식 등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Ⅴ장에서는 루터 음악의 의의와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주제와 범위를 가지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문헌에 의존한 연구로 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 논문 등을 기초로 하여 고찰해 보았다.



II. 종교 개혁 이전의 음악

1. 로마 가톨릭의 교회 음악

교회는 중세 사회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종교와 교육면에서도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중세 암흑시대의 음악을 보호하고 선도하였다.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채택되자 많은 개종자들이 나왔고 교회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회의 수를 늘리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교황들은 보다 규모 있고 형식을 갖춘 예배의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기존하던 예배 의식이나 성가들로는 대규모의 집회나 예배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전례와 음악의 개정 작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례와 음악 개정의 시도는 5세기부터 시작되었으나 개정이 구체화된 것은 590년부터 604년까지 교황으로 재위했던 그레고리우스(Gregorius)1세 때부터였다.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예배 의식의 개정 작업을 위하여 전례를 재정비하였고, 5세기에 로마에 세워진 스콜라 칸토룸(Schola cantorum)¹⁾을 재육성하였다. 무엇보다 교회음악에 관한 중요한 사업으로는 암브로시우스 성가나 동·서 지역의 교회 성가들을 수집하고 기존하던 로마 성가들을 집대성하여 표준화된 로마 가톨릭 성가를 제정하는 것이었다.

1) 성가는 로마에서 특수한 합창단에 의해 불리웠는데, 이들을 교육시킨 곳은 가창 학교(Schola cantorum)라 불리웠다. 이것이 공식기관으로 된 것은 그레고리 1세 때이다. Ulrich Michels(1977), 「음악은이 (dtv-Atlas zur Music)」 홍정수·조선우 편역(2000), 음악 춘추사 p. 187.

일반적으로 그레고리 성가라 함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되어온 전통적인 단성 전례성가를 말한다. 이는 서방 교회의 대표적 전례의식인 로마식 전례의 본격적 성가로서, 그리스도교 초기로부터 오늘 현대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를 특별히 그레고리 성가로 부르는 것은 교황 그레고리 1세(Gregory I, 590-604재위)가 이전부터 불려져 오던 여러 종류의 성가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그 정수를 보존하고 교회에서 찬송을 하는데 필요한 규칙과 표준을 정하고, 특별히 훈련된 찬양대 외에는 예배 때 교회에서 노래를 못 부르게 금하였으며 특별히 교회음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서방교회의 예배 형식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영창을 모은 교송집」(Antiphonarium)이라는 한 권의 책을 제정하였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이러한 그의 업적을 기려 이때부터 정리, 정착된 성가를 그레고리 성가(Gregorian chant)라 칭하게 되었다.²⁾



1) 그레고리 성가의 성질

그레고리 성가는 라틴어 가사가 달린 단선율로 이루어지며, 반주가 없이 남성으로 부르는 노래이다. 그리고 규칙적인 억양법보다는 분절되는 유연한 리듬으로 되어 있고, 또 오늘날 사용되는 장조나 단조와는 다른 음체제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능적인 미나 정서적인 호소보다는 종교적인 가사 내용의 표현에 크게 비중을 두는 것으로 음악 그 자체를 위해 들려진 것이 아니라 예배의 부속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불려진 음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성가의 선율 중 대부분은 오늘날 일반화된 민요조만큼이나 친밀감이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이것들을 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다.

2) 홍세원(2001), 「서양음악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pp.45~46.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배를 위해 사용되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그 연주에 세심한 주의를 요하기도 한다.³⁾

2) 그레고리 성가의 종류

모든 성가는 성서적인 가사를 갖는 것과 비성서적인 가사를 갖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것은 또다시 산문가사를 갖는 것과 운문 가사를 갖는 것으로 세분될 수 있다. 성서적 산문 가사로 된 예는 성무일과의 독성과 미사 중의 서간서와 복음서이다.

성서적 운문 가사로 된 것은 시편과 칸티움(Canticum)이다. 그리고 비성서적 산문가사로 된 것은 테 데움(Te Deum)과 안티폰(Antiphon)들, 4개의 마리아의 안티폰(Antiphon)류 등이 포함되고 비성서적 운문가사로 된 것은 찬미가와 시퀀티아(Sequentia)이다.

그리고 노래하는 방법에 따라 안티포날(Antiphonal:합창의 교체), 레스폰소리얼(Responsorial:독창과 합창의 교창), 다이렉트(Direct:교창 없이)로 나눌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분류법은 음절과 음표의 관계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는데, 대부분 혹은 모든 음절이 각기 하나의 음표를 갖고 있는 성가를 단음절적(syllabic)이라 부르고, 한 음절 위에 긴 선율이 이어지는 것을 멜리σμα적(melismatic)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멜리σμα적 성가에도 단음절적인 부분이나 악구를 더러 포함하고 있으며 반대로 단음절적인

3) Donald Jay Grout(1973), 「서양음악사 (A History of western Music)」, 김진균 외 역 (1984), 세광음악출판사, p.40.

많은 성가들도 때때로 어떤 음절에는 4~5개의 음표를 갖는 짧은 멜리스마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성가들을 때로는 네우마적(neumatic)⁴⁾이라 부르기도 한다.

3) 그레고리 성가의 형식

그레고리 성가를 그 형식의 일반적인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시편 창에서 보여지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시편시의 균형 잡힌 두 부분에 대응하는 균형 잡힌 두개의 악구로부터 이루어지는 형식

(2) 찬미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동일한 선율이 가사의 몇 절에까지 계속 해서 불려지는 유절 형식.

(3) 자유로운 성가로서 많은 전통적 선율형을 조합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독창적인 악곡을 이런 선율형에 가미시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선율형을 확대 혹은 발전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존의 선율형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창작적인 자유로운 형식의 성가 형태가 있다.⁵⁾

4) 그레고리 성가의 특성

이상에서 살펴 본 그레고리 성가를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례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음악의 특성이 지니는 내적 종교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레고리

4) 네우마는 중세에 초기 형태로부터 발전된,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쓰는 사각형과 마름모꼴 음표 형태이다. 네우마는 음높이를 고정시키지만 리듬 기록은 못한다. 멜리스마적 노래에서는 한 음절 위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음들이 여러 음 네우마를 통해 기록된다. 홍정수·조선우 편 역(2000), 전게서, p.117.

5) 김진균 외 역(1984), 전게서, pp.49~50.

성가는

첫째, 전례용 음악이다. 이는 특별히 그 음악의 용도가 가톨릭 예배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말이다.

둘째, 이 음악은 훈련된 성가대나 사제에 의해 불려졌다.

셋째, 이 성가의 가사는 라틴어로 되어있다.

넷째, 교회선법⁶⁾으로 작곡되었다.

다섯째, 전음계적이다. 이는 특별히 다채로운 색채감을 지니기는 하나 불안과 갈등감을 면치 못하는 세속 음악과는 다른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이는 성당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하면서도 깨끗한 멜로디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내면의 깊은 것으로부터 억제 할 수 없는 경건의 감정을 일으킬 만큼 은은하면서도 호소력이 있다는 말이다.

여섯째, 멜로디에 있어서 대도약이나 비약이 없다. 이는 바꿔 말하면 그레고리 성가는 그 선율이 마치 차근차근한 일상의 담화처럼, 그리고 잔잔한 파도처럼 단순히 반복되는 선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특별히 전율케 하고 압도케 하는 효과가 아니라 섬세하고도 미묘한 극적 효과를 준다. 왜냐하면 그레고리 성가가 가지는 선율과 운율의 부드러우면서도 높은 다이내믹스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하나의 단순한 상념에서 유출되는 것들인데 이들 요소들이야말로 신앙이 이성을 위해 작용하는 일, 즉 이성이 가

6) 성가는 일반적으로 8개의 교회 선법을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선법이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 음악이론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8개의 선법은 4개의 정격과 짝을 이루는 4개의 변격으로 되어있다. 변격 선법은 정격 선법과 같은 종지음을 갖지만 그 음역은 종지음으로부터 4도 아래부터 5도 위까지 펼쳐져 있다. 정격 선법은 고대 그리스의 종족 이름인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소리디아로 부르며 그와 짝을 이루는 4개의 변격 선법의 이름은 정격 선법 이름에 ‘히포’(Hypo-)라는 접두어를 붙여 부른다. 김문자 외 (1998), 「들으며 배우는 서양 음악사」, 심철당, pp.23~24.

지는 한계성을 넘어선다고 가르치는 미사 가사를 잘 표현한다. 그러므로 그 레고리 성가의 선율적인 이런 특성은 그 가사가 가지는 내적 종교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특성이라 말할 수 있다.⁷⁾

<도표-1> 악보. 교회선법



자료: 홍세원(2001), 서양음악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p.62.

7) 이광희(1986),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종교음악”,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p.11.

2. 독일의 세속음악

당시 음악적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은 다른 중요한 여러 나라보다 한층 뒤늦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1400년 이전의 음악 작품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고 단지, 민네징거(Minnesinger)와 마이스터징거(Meistersinger) 그리고 교회 음악과 관련된 14세기 및 그 이후 동안 여러 세기에 걸쳐 독일 음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국민적 스타일의 민요가 그 전부였다고 말할 수 있다.⁸⁾

1) 민네징거(Minnesinger)

민네라는 말은 사랑을 뜻하는데 민네징거라고 하면 귀족출신의 독일 시인 겸 음악가를 가리킨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활약한 음유예술인 트루베레와 트루바도르(Trouveres & Troubadours)의 영향을 받아 활약한 사람들로써 12세기 중엽부터 15세기에 걸쳐 활약했으며 귀족 계급 중심이었으나 점차 일반 시민층에서도 배출되었다.

이들의 음악은 트루바도르나 트루베레의 음악과 비슷하여 종종 옛날의 교회 선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2박자나 3박자의 리듬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프랑스의 그들 동료들이 불렀던 노래들과 같은 종류의 노래들을 많이 불렀다.

이들의 시는 마리아를 칭송한 것, 민족적인 신앙심, 소박한 연정, 정치적 문제등을 다루고 있으며 음악은 바르형식⁹⁾의 것이 가장 많으며 선율은 단선율

8) 이유선(1990), 「기독교 음악사」, 기독교문사, p.77.

9) AAB의 음악 구조를 갖는 바르 형식은 중세 독일시의 형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3부분 형식이다. 슈톨렌(Stollen)이라고 불리우는 A선율이 나오고, 이 A선율이 다른 가사로 반복된 후에 압계장(Abgesang)이라고 불리우는 B선율이 나타나는 구조로 되어있다. B선율은 A 선율보다 대체적으로 길다. 홍세원(2001), 전게서, p.102.

이며,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것보다 교회 선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2) 마이스터징거(Meistersinger)

민네징거를 이어 14세기에서 16세기를 걸쳐면서 마이스터징거로 알려진 그룹이 일어났다. 이들은 귀족적인 민네징거와는 달리 노동자 계급의 조합원들이었다. 그러나 민네징거처럼 이들도 음악과 시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들 음악은 특징은 소박하고 생활력이 넘치며, 유머러스한 시에다 비교적 자유로운 리듬의 무반주 단선율이 붙여져 전통적인 바르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특별히 뛰어난 그 시나 선율은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애창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한스 작스(Hans Sachs), 한스 포겔(Hans Vogel) 등이 있고 1893년 울름의 마이스터징거 조합이 해체 될 때까지 존속했다.

마이스터징거는 신중 시민계급의 제도를 반영한 문학적, 음악적 운동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음악중 어떤 표준적 선율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가사에 반주로 거듭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단점으로는 음악적으로 미숙함과 영감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⁰⁾

3) 민요

14세기의 일반 독일 국민들은 민요라는 형태의 음악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은 그 후 여러 세기동안 독일 음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국민적 스타일 음

10) Russel N. Squire, 「교회음악사(The History of Church Music)」, 이귀자 역(1990), 호산나 음악사, pp.119~120.

악의 든든한 기초를 닦아 놓았다. 이 민요가 어디서, 누구에게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는 마치 흑인 영가의 그것과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독일 국민들은 어디서나 그런 음악을 부르며 즐겼고 이들을 구전으로 전승해 나갔다.

이 민요라는 음악은 차원이 낮기는 하지만 깊은 정서가 담겨져 있고 젊음에 찬 참신함과 건전함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민요에 더욱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은 남녀노소 직업의 구분 없이 그리고 빈부귀천의 계급 없이 다같이 그 속에서 즐기며 활동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450년경에서 1550년경까지 100년 동안 독일 작곡가들은 네덜란드 풍의 대외법적인 다성음악속에서 되풀이하면서 발전시킨 민요가락을 지속했었다.

이러한 다성음악적인 작곡 중에서 현재 알려져 있는 최고의 것으로는 'Lochheimer Liederbuch'가 있는데, 이 가곡집이 이루어진지 수 십년 후에 이르러서는 독일의 다성가곡은 우수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당시 루터가 자신의 고향과 독일 국내를 두루 다니면서 들은 것은 모테트나 미사곡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노래인 다성음악화한 민요 가곡이었으므로 루터가 이런 민요에서 힌트를 얻어 후일 그의 음악적 대 공헌인 회중 찬송의 코랄(Chorale)을 이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¹⁾

11) 이유선(1990), 전게서, p.80.

3. 독일의 교회음악

9세기 이전에 독일에 유행했던 교회 음악으로는 비록 키리에 엘레이존과 크리스테 엘레이존(Kyrie eleison & Christe eleison)밖에 없었지만 868년과 1518년 사이에 수백 개의 종교적인 곡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대체로 다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창작 대중 찬송

이들 창작곡으로서의 대중 찬송들은 수백 개가 넘으리 만치 그 창작활동이 활발하였는데 이들 창작된 찬송들은 장례식이나 순례시 그리고 전투에 나아갈 때 등, 거의 모든 경우에 많이 불려졌다. 그 후에 기사도가 일어나며 여자의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동정녀 마리아를 찬미하는 노래가 사람들에게 일어났으며 궁정의 시인들은 독일 사람들이 종교적 예배에서 노래하는 것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비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신도들로 하여금 부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14세기 경에는 많은 대중적인 노래가 신비주의나, 종교적 광신자, 혹은 극도의 고행을 하는 고행자들에 의해 작곡되어 독일의 대중 찬송에 더해지게 되었으며 특기할 일은 이들 노래들이 모국어로 불려졌다는 사실이다. 평신도들의 예배 음악 참여를 금했던 당시의 교회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현황들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음악적으로 개혁의 기운을 활발히 띄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속 곡조와 종교시가 결합된 찬송(Contrafacta)

한편 14세기 이후로는 종교적인 시에 세속적인 곡조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찬송들은 콘트라팍타(Contrafacta)라고 하는데 이런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자 그 부작용으로, 종교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연가나 권주가에 가사만 바꾼 노래들조차 성가로 쓰이는 모순을 낳게 되었다.

3) 종교적 교육을 목적으로 한 노래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종교적 교육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노래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노래 중에는 교회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에 혼동을 일으키거나, 혹은 부정확하거나 교리와 상반되는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노래도 있었다. 그 예를 든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자 내지는 지배자인 것으로 나타내어 교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이미 개혁의 필요성이 내재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²⁾

12) 이귀자 역(1990), 전게서, pp.125~126.

Ⅲ. 종교 개혁의 형성 배경

1. 당시의 시대적 배경

1) 일반적인 정치·사회적 측면

종교개혁이 발생한 16세기는 다수의 운동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새시대의 양상을 드러내었던 격변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중세사회는 14~15세기를 고비로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르네상스운동, 상업의 부활과 도시의 발생, 화폐경제의 대두, 초기 자본주의의 형성, 왕권의 강화 등으로 근대적 발전이 시작되었다.

특히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는 서양사 구분으로 볼 때 지리상의 발견시대라 불리는 시기로 해외탐험이 성행하여 많은 미지의 지역이 발견되었고 중세 유럽에만 국한되었던 유럽인의 활동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으로 확대되었다.

(1) 정치적 측면

중세 독일의 정치적 이상은 소위 신성 로마제국을 주축으로 하는 세계국가 수립이었다. 이와 같은 꿈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대군주들은 이탈리아의 경영에 몰두한 나머지 봉건 제후들에게 자기 세력 확장의 기회를 주게 되어 지방분권적 봉건국가 체제로 굳혀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권은 유명무실에 가까울 정도로 그 권한은 극히 미약했다.

특히 콘라더 4세(Konrad IV, 1250-1254)의 사망이후 왕통이 끊어지게 되고 대제후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제국의 관직과 봉토를 세습하고 국왕이 가지고 있던 제특권을 빼앗아 독립하여 연방국가를 형성하였다.

이 결과 독일 제국 내에는 300개 이상의 연방국가가 탄생하였고 반면에 황제권은 겨우 자가의 영지와 약간의 도시에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1273년 합스부르크가가 왕위를 계승한 이후부터 독일은 몇 차례의 정치적인 기복을 거치면서 근세 국가의 길을 걸어오다가 막시밀리안 I 세(Maximilian I, 1493-1519)가 황제에 즉위하자 선왕들의 치하에 기울어졌던 국세를 만회하고 오스트리아와 그의 속국에서 합스부르크 왕실의 세력을 견고히 하였다.

그는 문예부흥을 일으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남겼고, 그의 손자인 카알 5세(Karl V, 1519-1556)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선출된 것과 유럽의 반 이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도 막시밀리안 I 세의 덕택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대부분의 영토는 교회의 소유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신성 로마제국은 권위를 잃고 쇠퇴일로에 있었기에 교회의 통치권과 귀족들의 세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¹³⁾

(2) 사회적 측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독일의 경제상황은 장원경제가 몰락하고 신흥 자본주의가 새롭게 대두되던 시기였다. 중세의 경제구조는 크게 두개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장원경제이고 또 하나는 중세후기를 지배하는 도

13) 홍치모(1983), 「종교개혁사」, 성광문화사, pp.49~51.

시경제이다. 장원경제란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체제로 장원을 단위로 하여 영주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기반이었다.

당시 수입의 감소와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던 연방 제후들은 그들의 경제적 실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토지영주에게 경제적 압력을 가하게 되자 그 여파는 필연적으로 농민들에게 미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주들은 농민에게 새로운 연공과 부역을 부과하였고, 부락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오던 산림의 채취를 비롯하여 모든 권리를 박탈해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교회의 제후들은 로마교황청의 지령을 받아 10분의 1세를 징수하는데 한층 더 열을 올렸고 누적되어 있는 부채를 갚는데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면죄부 판매였다.¹⁴⁾

당시 교회는 자선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고, 사제의 미사행위로 연옥에 지체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속죄를 위한 헌금과 기부와 십일조 등으로 교회의 창고가 가득차고 더 나아가 교회의 제단을 만들게 되었다.

사회는 점차 금력에 의해 움직여지기 시작했고 교회 역시 세속주의에 물들어 점차로 타락해가기 시작했으며 급기야는 면죄부 판매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교회의 이러한 타락 속에서 당시 도시나 농촌에 있어서 농노의 해방을 반대한 주역은 귀족이 아니라 교회였다. 대다수의 영주들이 농노를 해방시켜 주고 자유노동자로 고용하여 일당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생각할 때에도 교회는 농노 해방을 완강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사회적 권위는 거의 감퇴되어 있었고 신흥계급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이 봉건제이며 그것의 보루가 교회임을 알았으므로 봉건제도

14) 조일구(1987), “루터의 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p.8.

를 뒤집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회와 싸워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터는 1517년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불만에 쌓여 있던 독일 국민들의 호응을 받게 된 것이었다.¹⁵⁾

(3) 인쇄술의 발달

또한 종교개혁에 있어서 인쇄술의 발달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최초의 원시적 기술은 언어와 교통이요, 그 다음의 기술은 인쇄라 할 수 있겠는데, 인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문화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너무도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 할 수 있다.¹⁶⁾

이때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1336년에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최초로 수로지 공장을 창설했고 1423년 독일에서 연대가 확실한 유럽 최고의 목판화 ‘성 크리스토퍼 상’을 인쇄했으며 1438년 독일 스트라부르크에서 요한 구텐베르크가 목세공사 콘라드자스 바하에게 압착기와 비슷한 목제 인쇄기를 제작 시켰다. 1452년 교회비치용인 호화판 성서의 간행을 착수했으나 1455년 독일의 피터 쉐퍼가 42행 성서를 완성하여 현재 활자판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다.¹⁷⁾

그 후로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등지로 인쇄술이 확산되어 나갔다. 1511년 음악에 관한 기본적인 독일어 교칙본인 제바스티안비르 등의 「독일의 음

15) 양은주(1991), “역사적 측면에서 본 M. Luther와 그의 찬송이 가지는 의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p.5.

16) 안춘근(1969), 「출판사회학」, 통문관, p.150.

17) 홍정자(1991), “루터 찬송의 배경과 그 변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p.4.

악」(Musik Deutsch)이 인쇄되었다. 1512년 독일의 다성가곡의 악보집이 뉘른베르크에서 외글린(Oeglin)에 의해 출판되었다. 악보의 인쇄에 따라 음악의 발전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인쇄기술은 목판, 동판, 아연판 순서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음악 문화 향상에 큰 공헌을 하였다 할 것이다.¹⁸⁾ 1517년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의 라틴어 논제들이 독일어로 복사되고 친구들에 의해 수만 장이 인쇄되어 독일 전역에 배포되었는데 이 문서가 14일 이내에 곧 독일 전역에 퍼진 것과 그의 악보가 단시간에 민중에게 배포될 수 있었던 것은 인쇄의 발달이 크게 종교개혁을 도왔다고 볼 수 있다.¹⁹⁾

2) 사상적 측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은 중세 교황권 지배아래 얽매어 있던 개인 영혼에게 해방을 선포한 혁명적인 주장으로 당시 지배적이던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종교적 계급주의를 타파하고, 구원에 대한 집단 책임을 개인 책임으로 전환시킴으로서 세계사적 변혁을 초래한 사상이었다.

이러한 루터의 사상에 영향을 끼친 스콜라 주의, 옥캄의 유명론, 르네상스 인문주의, 독일 신비주의, 어거스틴학파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스콜라주의

루터 이전 뉘른베르크 대학의 학문적 경향은 스콜라주의로 대표될 수 있다. 이 스콜라주의는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학문으로 신학과 철학에서, 그리

18) 이성삼(1983), 「서양 음악사」, 남해문화사, p.70.

19) 양춘근(1997), “종교개혁이 교회 음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p.8.

고 삶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나타난다. 스콜라신학은 기독교 신앙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기독교 계시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적용시켜 신앙과 이성, 철학과 계시의 화해”를 시도했던 것이다. 이 스콜라주의는 크게 3기로 나누는데 1기는 8~12세기로서 발생기에 해당되며, 2기는 13세기전성기이며, 3기는 14~15 또는 16세기에 이르는 쇠퇴기에 해당된다. 종교개혁은 이 쇠퇴기에 접어들었을 때 일어났다. 초기에는 대개 어거스틴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의 대립으로 보기도 하고 도미니크파와 프란시스파간의 신학적 논쟁으로 보기도 한다. 도미니크파는 아퀴나스로 연결되어 신학대전을 낳고, 프란시스파는 스코투스(Duns Scotus)로 연결되어 전성기를 맞는다.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조하여 이성으로 의지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반면 스코투스는 의지가 이성보다 우위를 차지하며 이성으로는 신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본다. 루터도 비텐베르크에서 스콜라주의를 접하지만 배격하게 된다.²⁰⁾

(2) William Occam의 유명론

스콜라 철학에 있어서 실재론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보편에 대한 실재문제를 두고 보편이 실재한다는 쪽이 실재론이고, 보편은 실재하지 않고 다만 명목상이며 존재하는 것은 개체라고 주장한 것이 유명론 혹은 명목론이다. 유명론이 제창된 시기는 전, 후 2기로 나뉜다. 전기는 11~12세기에 베렝가르(Berengar)와 로스켈리누스(Roscelinus)에 의해서, 그리고 후기²¹⁾는 토미즘

20) 현익부(2001), “종교개혁 과정에 나타난 루터의 교육사상”,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1) 후기 유명론은 스콜라철학의 붕괴를 초래하였으며, 근대 영국 경험론에의 길을 열었다.

(Thomism)과 스코티즘(Scotism)을 거부하며 옥감(William of Ockham)에 의해 선도되었다. 옥감은 파리대학 교수를 지냈고 교황에 반항한다는 이유로 투옥되기도 하였다. 옥감은 우선 지식을 얻는 방법을 추상보다는 직관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을 기초로 신을 개별적인 의지, 즉 신앙에서 파악하려 했다.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교회의 교리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리고 교황의 권위보다는 영감에 의한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다.

옥감의 사망 후 유명론은 그의 제자인 비엘에 의해서 계승되고 확산되었으며, 에르푸트 대학시절 우징겐을 통해 루터에게 전해졌다. 이 당시 파리의 옥감주의자들은 물리학에 있어서 기초적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접할 수도 있었다. 초기에 루터는 옥감과 비엘의 사고에 공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루터는 유명론과 차이를 보이게 되었고 후에 루터는 유명론과 대립을 보이게 됐다. 루터와 유명론의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은 본질이 선하다는 유명론에 반해 루터는 신의 절대적인 권능 아래 인간의 본질은 부패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옥감의 지적 개인주의와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강조는 종교개혁에 일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²²⁾

(3) 르네상스 인문주의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십자군 전쟁 이후 이탈리아의 부강의 결과로 새로운 인생관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13세기경부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서서히

서문당(1975), 「컬러판세계백과대사전(제15권)」, p.55.

22) 현익부(2001), 전게서, pp.13~14.

일기 시작한 인간성 회복 운동이다. 이는 14세기말부터 16세기에 걸쳐 급진적으로 전 유럽에 전파되어 천여 년 간의 교회지배로부터의 해방운동을 전개하면서 천문학, 의학, 지리학, 문학, 예술 등 인간 생활의 여러 영역에 걸쳐 커다란 혁명을 가져왔다.²³⁾

르네상스 없이 종교개혁은 불가능하였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복구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것이 루터에게 준 영향은 성서 연구이다. 로렌조 발라나 로힐린 같은 인문주의자들은 성서의 원어를 연구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성서에서 찾아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²⁴⁾

인문주의자들 중에서 특히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그는 교회가 성서적인 단순한 기독교로 돌아갈 것과 초대 교부들을 연구할 것을 강조했다. 에라스무스는 성서를 번역했는데, 그의 헬라어 성서를 가지고 루터는 로마서 9장부터 주석 하였다. 루터는 성서 해석에 있어서 에라스무스의 역사적이고 언어적인 성서해석방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²⁵⁾

(4) 독일 신비주의

교회의 의식과 성례대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합 및 개인의 내면적 체험을 추구했던 이 사상은 12세기부터 시작되어 14세기까지 발전되면서 로마교회 정화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며 당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신비주의는 특히 루터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쳐, 종교개혁의 근본원리인 만인사제직의 모체가 되었다.

23) 홍치모(1983), 전계서, pp.133~134.

24) 이형기(1984), “종교개혁 신학사상-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p.7.

25) 지원용(1983), 「루터와 종교개혁」, 컨콜디아사, p.21.

이 신비주의의 특색은 수난을 겪으신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대로 본받아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같이 되고자 한 것이며, 이들 신비주의들 중에 루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독일 신비주의였다. 대표자는 엑카르트이며 루터는 엑카르트의 제자 타올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타올러는 엑카르트의 전통에서 있으면서도 보다 아퀴나스적이고, 성서적이고, 성서를 중요시 하였다.

(5) 어거스틴학파(Augustinism)

어거스틴(아우구스티누스, Aurelius Augustinus)은 북아프리카 태생의 교부로서 신이 어떻게 하여 악을 만드는가에 의혹을 가져 마니(Mani)교에 귀의하였다가 마니교의 우주론에 회의를 느껴 387년 세례를 받고 보좌주교직을 맡았다. 신플라톤주의적 기독교화에 힘썼으며 모든 국가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그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은 도덕적으로 전혀 무력하여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된다는 생각을 한층 발전시켰다.²⁶⁾ 루터는 공동생활 형제단에서부터 어거스틴을 접하게 되어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의 은총신학, 계시신학은 루터의 신학적 기초가 되었다. 불가항력적 은총, 예정적 은총의 이해는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義)와 인간의 의(義)는 상호보충적이고, 인간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가 함께 이해되는 양면성이 있지만, 루터에게는 오직 인간 외적, 신(神)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이해만 존재한다.²⁷⁾ 이 점은 후에 에라스무스와도 대립하게 된다.

26) 서문당(1975), 「컬러판세계백과대사전(12권)」 p.598.

27) 김홍기(1996), 「세계기독교의 역사이야기」, 예루살렘 pp.50~51.

2. 종교개혁의 배경

1517년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루터의 ‘95개조 논제’는 일반에게 널리 퍼지게 하거나 혹은 어떤 혁명을 일으킬 의도에서가 아니었으며 주로 대학생들과 교수들을 상대로 토론을 목적으로 한 신학적이고 아카데미한 성격의 것이었다.²⁸⁾

그 당시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당은 막대한 비용으로 벌써 100년 이상 공사했으나 아직 완공을 보지 못해 1506년부터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다. 면죄부 판매는 비성서적인 가르침에 근거하여 비열한 방법으로 꾸며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릇된 교리를 만들어 서민들에게 돈을 받고 구원을 매매한 사건이었다.²⁹⁾ 이에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신학적 토론을 위하여 ‘95개조 논제’를 발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건은 모하게도 루터로 하여금 자기의 견해를 지탱하지도 포기하지도 못하게 진전되었다.

도미니크 수도사 프리에리오의 마졸리니(Silvestro Mazzolini of Prierio)는 루터와의 논쟁에서 “로마교회는 추기경을 대표하는 교회이며 더 나아가 교황을 지상(地上)으로 여기는 교회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면죄부를 부정하는 자는 이단이다.”라고 하였다.³⁰⁾

이처럼 교황청의 압력이 가해지자 점차 루터와 로마 교황청의 논쟁은 교황 권에까지 비화되었고, 결국 루터는 이런 여러 차례의 논쟁 과정을 거쳐서 그가 확신하고 있는 성서의 권위를 중세기의 모든 권위구조보다 앞세웠으며, 따라서 그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고 성서적 진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28) 지원용(1987), 「말틴 루터」, 컨콜디아사, p.90.

29) 상계서, p.84.

30) W.Walker(1982), 「기독교회사」, 류형기 역 편, 한국기독교 문화원, pp.259~260.

불과불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저항해야 했다.

루터는 교황권은 적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의 성서관과 구원관을 바탕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관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교개혁 운동의 본질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종교개혁은 사도들에게서 계승한 초대교회의 순수성과 단순성을 사모하여,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라.”고 부르짖는 운동이었다.³¹⁾

이와 같이 종교개혁은 초기 기독교정신에의 복귀를 목표로 하여 속화(俗化)되고 부패한 중세 가톨릭 교회의 현상을 개혁하려는 르네상스적인 혁명운동으로, 이 운동은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가 덧붙여져 하나의 역사적인 대사건으로 전개되기에 이른다.³²⁾

3. 음악사적 배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루터가 활동했던 16세기는 르네상스의 시대로서 중세로부터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음악은 전체적으로 세속화, 인간화, 표면화, 감각화의 경향을 나타냈다. 세속음악이 귀족의 보호아래 새로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교회음악 분야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음악이 발전하였다. 또한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 창시된 독일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교회음악은 창작활동에 자극을 주었으며 코랄이라고 하는 새로운 찬송이 탄생하여 음악사에 귀중한 공헌을 하게 된다.³³⁾

31) 지원용(1983), 전계서, p.35.

32) 이동운(1979), 「세계사 개론」, 일지사, p.221.

33) H. M. Miller(1987), 「새 서양 음악사」, 최동선 역 편, 현대 악보 출판사, p.66.

일반적으로 르네상스는 고대문화의 부흥을 뜻하는 말로서 미술이나 문예의 경우에는 확실히 그러한 고대의 부흥이 정신적으로나 기법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나 음악의 경우에는 고대예술의 부흥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시대의 음악작품의 음역이 전대(前代)의 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넓어지고, 새로운 음 공간이 개척된 것과 악보 인쇄술의 발명, 정량기보법의 보급등은 르네상스의 과학적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르네상스라 할 수 있다.

르네상스의 음악은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 걸쳐 전개된 플랑드르 악파(Flemish school)의 음악에 의하여 본격적인 첫걸음을 던지게 되는데 오케겜(Johannes Ockeghem, 1430경-1495), 오브레흐트(Jacob Obrecht, 1450경-1505)에 의한 폴리포니 기법의 철저한 개척에 이어, 죠스캥 데 프레(Josquin des Prez, 1450경-1521)의 음악, 특히 그의 미사곡에 이르러 르네상스 음악의 전형이라 일컬을 만한 것이 성립된다.

이탈리아는 마드리갈과 같은 훌륭한 세속음악을 낳았고, 페스타(Constanzo Festa, 1490경-1545), 팔레스트리나(Pierluigi dappalestrina, 1525경-1594), 마렌찌오(Luca Marenzio, 1553-1599), 루짜스키(LussascoLuzzaschi, 1545-1607), 몬테베르디(Claudio Monteverdi, 1567-1643) 등의 작품이 산출되었고, 교회음악에서는 로마의 팔레스트리나에 의한 미사곡·모테트, 그리고 베네치아의 지오반니 가브리엘리(Giovanni Gabrieli, 1557-1612)등의 기악을 결들인 2중합창 등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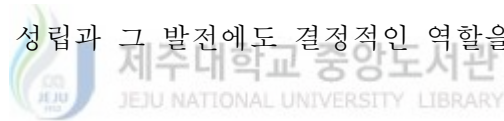
프랑스에서는 파리와 같은 도시의 시민계급의 향상에 따라 샹송은 궁정으로부터 시민의 가정으로 스며들고, 자느캥(Clement Jannequin, 1485경-1565)등의 다성 샹송과 류트반주를 결들인 독창 샹송을 낳았다.

독일에서는 플랑드르 악파의 작곡가, 이자크(Heinrich Isaac, 1450경-1517), 랏수스(Orlandus Lassus, 1532-1594)등의 활약이 뚜렷했고, 이들의 영향을 받아 쟈플(Ludwing Senfl, 1490경-1543)의 독일 다성 리트가 행해졌다.

16세기 말에는 이탈리아의 영향이 강해져 하슬러(Hans Leo Hassler, 1564-1612)의 다성합창곡, 갈루스(Jacobus Gallus, 1550-1591)의 2중 합창곡 등이 작곡되고 있었다.

이상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르네상스 음악의 중핵(中核)은 성악 폴리포니 기법이며, 미사·모테트와 여러 가지 세속합창곡이 중심이 되었으나, 기악 음악의 발달도 눈부신 바 되었으며, 오르간 그 밖의 건반악기, 류트·소합주 따위를 위한 각 국 특유의 기악 작품이 잇달아 작곡되었다.

또한 16세기말에는 여러 가지 극음악의 시도가 행하여졌고 이것들은 17세기 바로크 음악의 성립과 그 발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³⁴⁾



34) 음악대사전 편찬위원회(1973), 「음악대사전」, 신진출판사, pp.335~336.

IV. 루터의 생애와 음악

1. 루터의 생애와 독일어 성서번역

1) 루터의 생애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1월10일 중부독일의 아이슬레벤(Eisleben)에서 7남매중 맏아들로 태어났다.³⁵⁾ 본래 독일 농부출신이었던 부친이 광산업에 손을 댄 후부터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는 1491년에 같은 시에서 시민의 권리를 변호할 수 있는 4명의 대표중 한사람으로 선출되었다. 루터의 아버지 한스(Hans)는 자주정신이 강하고 엄격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그의 어머니 마가렛타(Margaret)는 부지런하고 충실하며 단순한 성격의 여자였다. 그들은 경건한 생활과 그 당시 미신적인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따르는 신자들이었다. 따라서 루터의 소년시절, 가정은 경건한 중세기 가톨릭교의 가정이었으며, 그 부모들은 교회의 충성스럽고 열성있는 교인이었기에 자녀들에게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간단한 찬송가를 가르쳤다.

“나의 부모는 나로 하여금 강제로 복종하게 했으며 또한 너무 엄격하여 나를 낙심하게 까지도 하였다 . 호두하나 때문에 나의 어머니는 피가 흐를 때까지 나를 때린 일이 있다.”고 하였고, 회초리를 아끼면 자녀들을 못쓰게 만든다는 옛 금언을 따라 가정교육을 받았다. 루터는 5살 때 만스펠트(Mansfeld)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3과목(Trivium)즉, 문법, 수사학,

35) 태어난 다음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이 성 말틴 축일이어서 아버지 Hans 는 그의 아들 이름을 마르틴(Martin)이라고 지었다. 지원용(1987), 전게서, p.20

논리를 배웠다. 근대 국민주의적 자각과 국가사상의 계몽도, 모국어의 학습을 부흥시킨 이유로 독일어와 라틴어로 병행하여 학습하였다. 루터의 부모는 1497년 14세때 루터를 마그데부르크(Magdeburg)시로 보내었다. 이 도시는 만스펠트시보다 3배나 큰 곳으로서 대주교의 거주지이기도 하였다. 루터는 이곳에 있는 교회학교에서 만1년을 보냈다. 놀푸르더의 학교는 「공동생활 형제들」이 가르치던 기관이었다. 그는 이 「공동생활 형제들」로부터 성서와 경건을 배웠던 것이다.³⁶⁾

그후 아이젠나하(Eisennach)시로 옮겨 훌륭한 트레보니우스(Trebonius)와 쾰텐나프(Wigand Gueldennaph)밑에서 신앙과 신학적 역량을 키워나갔다.³⁷⁾

1501년 봄 루터는 독일 인문주의의 중심으로 알려진 에르푸르트(Erfurt)대학교 문리과에 입학하였다. 에르푸르트시는 독일의 작은 로마(Miniature Roma)로 불렸던 곳이다.

루터는 이 대학에서 1502년 말, 1년 반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505년 1월7일에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부모의 소원에 따라 같은 해 1505년 5월에 에르푸르트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여 계속 공부하기 시작했다.³⁸⁾

루터가 21세 되던 해 초여름 귀향했다가 대학으로 오던 길에 돌연히 심한 우레를 만나게 되었다. 세상을 뒤집을 듯한 뇌성벽력으로, 루터는 땅에 엎드려져 졸도하였으나 의식은 잃지 않은 상태에서, 말 할 수 없는 종교적 공포에 싸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노하심, 그리스도의 죽음, 죄인인 자신으로 사망의 상황에서 루터는 무의식 중에서도나마 가느다란 희망을 걸고“성 안나여! 나를 도와 주소서, 나는 수도사가 되겠나이다.”라고 외쳤다. 이것이 계기가 되

36) 홍치모(1983), 전계서, pp.58~59.

36) 지원용(1987), 전계서, p.49.

38) 상계서, p.32.

어 에르푸르트시로 돌아오는 즉시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1505년 7월17일 엘볼트에 있는 어거스틴과 수도원에 들어갔다.³⁹⁾ 수도원의 견습기간을 마친 뒤에 1506년 수도사가 되고 그 다음해에는 사제가 되었다. 1508년에 신학박사가 되어 1521년에는 비텐베르크(Wittenberg)대학의 신학교수가 되었는데, 1546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교수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캐더린 본 보라(Katherine Von Bora)라는 수도원을 이탈한 수녀와 결혼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행복하였고, 내외로 밀려오는 도전으로 시달린 루터에게 캐더린은 유일한 보조자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5남매를 주셨고, 루터는 자녀들에게 부드러운 사랑과 인자함과 엄격함을 겸한 이상적인 아버지였다. 그는 1546년 2월 18일 그의 출생지인 옛 고향 아이슬레벤에서 63세에 세상을 떠났다.⁴⁰⁾



2) 독일어 성서 번역

종교개혁 이전에도 성경의 권위가 공 교회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성서가 지니는 유일하고도 고유한 신적인 권위는 부정되었고, 또한 성경 자체가 대중들에게 거의 읽혀지지 않았다. 또한 성경과 전통이 교회 신앙의 근원과 교리로 가르쳐진다고 하였지만 성경이 실제로 말하고 의미하는 것은 대부분이 몰랐다.

이러한 때에 루터는 성경의 권위를 높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얘기하는 바를 밝혔으며, 또한 성경 번역을 통하여 성서를 널리 보급하였다. 루터는 원어로서의 성스러운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와 교부들의 신앙으로 돌아갔

39) 상계서, p.56.

40) 상계서, p.77.

다. 그는 교회의 전통이라는 무덤으로부터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그리스도의 엄위 하신 모습을 새롭게 부활시켰고, 감추어진 채로 닫혀있던 역사 안에서 그의 행동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시대에 새롭게 비추었다.

성서와 교회 전통에 비추어서 해석하던 믿음의 도가 이제는 ‘성서의 권위’를 주장함으로써 모든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이 성서 안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밑으로 들어갔다. 무엇보다 루터의 가장 큰 발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서의 충족성이었다.

1521년 보름스회의에서 이교도라는 판결을 받고 위기에 처하여 귀로에 있는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후 프레데릭은 절친한 기사들을 시켜 그를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바르트부르크성으로 이송하였다. 1522년 3월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이 강제적인 은거생활에서 거두게 된 가장 보람 있는 수확은 1521년 12월에 시작하여 그 다음 해 9월에 출판한 그의 신약성서 번역이었다. 그는 “나는 성서 번역 때문에 펍 고생을 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서를 번역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호의나 금으로 나를 설복시켜 한 책이라도 번역하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루터 이전에도 독일어 번역 성서가 없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라틴어에서 번역한 것인 데다가 표현이 어렵고 서툴렀다. 루터는 에라스무스 희랍어 성서에서 직접 번역하였으며, 그 문장과 용어가 알기 쉬운 독일어였다. 이 번역성서는 독일어의 통일과 문학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독일 민족의 종교생활 발전에 이보다 더 위대한 봉사는 없었다.

그의 성서 번역으로 말미암아 뒤 이어서 프로테스탄트 번역본들이 나오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개혁자들의 번역판들이 나왔다.

성서는 더 이상 외국언어로 된 외국서적이 아니라 자국어인 민중의 서적이 된 것이다. 성서번역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은 더 이상 개혁자들의 저작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자체에 의존하게 되었다. 일반 신도들은 번역 성서에 의해 매일의 영적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었다.

독일어 성서는 독일 문학의 최고 걸작의 하나이다. 설령 루터가 이 밖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번역한 훌륭한 독일어 성서 번역은 음악과 문학의 역사상에 있어서 그의 이름을 불멸하게 했을 것이다.

4백년 동안, 이 성서의 텍스트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독일 종교음악 작곡가들의 창작의 샘터가 되었다. 루터의 영감에 넘치는 힘찬 개성적인 언어에 의하여, 처음으로 바하의 칸타타며, 수난곡, 브라암스의 독일 레퀴엠과 같은 작품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⁴¹⁾



2. 루터의 신학사상

1) 성서의 절대 우위성

종교개혁의 객관적인 원리이다. 루터에 의하면 성서만이 프로테스탄트신앙의 유일한 규범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토대로 성서를 강조하여 전통이나 교황의 교서가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이 입장은 신자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⁴²⁾ 고 가르친 말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루터의 부단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41) 홍정자(1991), 전계서, pp.19~21.

42) 「신약성서」, “에베소서”, 2:20.

교리를 제정하며, 이성(理性)이나 교황 또는 교회 의회(議會)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사람의 교훈이나 계명’에서 교회를 해방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국어로 성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터는 1521년 신약성서를 그의 모국어로 번역한 것을 시작으로 1534년 구약성서까지 번역하였고 그 후에도 그 번역서를 개정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물론 루터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성서를 번역한 적이 있었다.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하였고, 독일어 번역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국어로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것과 세계 천여 개 이상의 언어로 성서가 읽혀지고 있는 것은 루터의 성서중심의 신앙관과 번역의 힘이 크다.⁴³⁾

2) 은총에 의한 구원관

종교개혁의 주관적인 원리이다. 이것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이 결코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앙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루터의 강조점은 선행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선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잘못된 견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루터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로서 다음과 같은 명확한 몇 가지 성구(聖句)에 근거하고 있다. 즉,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⁴⁴⁾ “사람

43) 배한국(1993), 「루터와 종교개혁」, 컨콜디아사, pp.33~34.

44) 「신약성서」, “에베소서”, 2:8.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⁴⁵⁾등의 구절이다.

그러므로 루터의 구원관에 의하면 죄인이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으로 주어진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굳게 신뢰하고 죄를 참회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선언을 받고 그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⁴⁶⁾

3) 만인사제직(萬人司祭職)

개개인 신자의 외부로부터 간섭 없는 특권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제나 교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체사장이며 속죄주(贖罪主)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보는 점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사제가 될 수 있으며, 사제나 교황의 특권도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성서는 모든 신자들의 보편적인 제사장직을 가르친다. 그는 곧“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⁴⁷⁾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⁴⁸⁾ 라는 성구를 인용하고 있다.

45)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2:16.

46) 배한국(1993), 전계서, pp.33~34.

47)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1:6.

48)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2:9.

모든 신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직이란 그들의 구세주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증개할 인간적인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이 영적(靈的)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에게서 죄의 용서와 새 생명과 구원의 모든 영적 은사(恩賜)를 자유로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제사장 없이는 용서도 없다.”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인간적인 제사장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대제사장이시며 우리 영혼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⁴⁹⁾

3. 루터의 음악



1) 루터의 음악관

루터는 음악을 무척이나 사랑하였고 음악적인 소질을 많이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악기 연주하기를 즐겨한 사람이었다. 루터는 어느 개혁자들보다 음악에 대하여 개방적이었다. 심지어는 가톨릭 음악까지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그가 음악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발간된 찬송가 서문이나 성경주석책, 설교문 등에서 그의 교회음악관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루터는 그의 신학 중심이 성서인 것처럼 교회음악도 성서에 근거를 둔다. 특히 시편의 음악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시편이 지니고 있는 문학성이나 음악적인 관점에서의 예술성보다는 시편이 지니고 있는 신학, 곧 영적

49) 배한국(1993), 전계서, pp.34~35.

인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⁵⁰⁾ 또한 루터는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것처럼 음악도 들려진다는 의미에서 음악은 말씀과 닮았다고 하였고 믿음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롬10:27) 하나님 말씀처럼 음악을 귀하게 여겼다.⁵¹⁾

둘째로, 교회음악은 즉 경배음악으로 보았다. 음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에 예배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루터 자신이 지원하여 발간하였던 1524년 발터(Johann Walther)의 찬송가집 서문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일은 좋은 일이고 신을 즐겁게 한다는 점을 모든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구약성서에서의 왕과 예언자들의 예와 기독교 교회 초기부터 특히 시편으로 노래부르는 습관으로 알기 때문이다.....나는 모든 예술 특히 음악이 음악을 만드신 창조주의 예배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⁵²⁾라고 서술한다.

셋째로, 음악을 통해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찬송의 결여를 곧 믿음의 결여를 나타낸다.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는 그것에 대해 침묵할 수 없으며,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고 그것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리함으로 불신자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 노래하고 말하기 원치 않는 자는 누구나 그를 믿지 않는 자이며, 그러한 자는 새롭고 즐거운 성서아래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캐캐묵고 진술하고 싫증난 율법아래 있는 자다.⁵³⁾ 라고 말하므로 음악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밥스트의 찬송 서문(Preface to the Babst Hymnal, 1545)에서 말하고 있다.

50) 김상배 (1993), 「성경에 계시된 교회음악」, 엘멘출판사, p.35.

51) 홍정자(1991), 전계서, p.22.

52) 강명신(1991), “Martin Luther의 Chorale이 교회음악에 끼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p.15.

53) 홍정자(1991), 전계서, p.23.

넷째로, 음악은 성령의 도구라고 주장한다. 음악은 깊은 인간내면에 있는 것을 불러일으킨다. 음악은 인간이 말씀의 부름에 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설교 말씀 직전에 찬양을 하는 것이다. “성령은 이 고귀한 예술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이를 찬양하고 높인다. 성경은 음악이 행하는 모든 덕과 선행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⁵⁴⁾ 또한 음악은 정신적 무감각, 게으름 등을 떨쳐 버리고 인간을 생동케하고 신선케하는 ‘타오르는 힘’이 있다고 보았다. 음악은 이성에 한하기보다는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정신을 자극, 고무한다. 이로 인해 음악은 복음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음악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며 악마를 쫓아낸다고 한다. 기약도 교회에서 허락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또한 다윗이 수금으로 사울의 악령을 쫓아낸것도 기약의 영적 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았다. 1530년 Treatise on music에서 “나는 음악을 사랑한다. 모든 광신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음악을 경멸하는 사람을 좋지 않게 여긴다. 왜냐하면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의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악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 음악은 악마를 쫓는다. 순수한 기쁨을 준다. 분노 부정, 교만을 몰아낸다. 나는 신학 다음에 음악에게 자리를 준다. 이것은 다윗과 모든 선지자의 예로부터 분명하다. 그들은 시와 노래로 그들의 관심사의 모든 것을 전했기 때문이다. 음악은 평화의 시간들을 다스린다. 또한 유지한다. 우리의 후손들은 그러한 예술 때문에 더 잘 살아갈 것이다. 음악이 나를 격려하고 고무했기 때문에 나는 설교할 욕망을 갖게 되었다. 노래는 가장 좋은 예술이다. 노래하는 사람은 괴롭지도, 슬프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서 모든 근심을 잊어버린다.”⁵⁵⁾

54) 홍정수(1988), 「교회음악개론」,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p.33.

55) 홍정자(1991), 전개서, p.25.

라고 말했다.

여섯째로 루터는 찬양이 언어를 뛰어넘어 환성이나 환호의 외침과 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한다. 하나님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 신데 침묵할 수 없고 환성 이외에는 그 표현이 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환성이 찬양의 추진력 일 수밖에 없다. “노래와 찬양은 즐거운 마음이 자라남으로써 발생한다.” 이를 통해서 언어의 제한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루터는 교회음악의 위력을 인정하고 신학 다음의 위치에 놓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루터의 음악관과 교회음악관을 평하여 미국의 음악학자 리이폴드(U.Leupold)는 “루터의 찬송가의 목적은 종교적인 기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며, 단순히 인간의 감정 표현이 아닌 신앙고백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⁵⁶⁾



2) 음악교육

이러한 루터의 음악관을 바탕으로 루터는 음악교육에 큰 비중을 두었다. 루터의 음악교육은 “교구 목회자들을 방문한 사람들을 위한 교훈 (Instruction for the Visitors of Parish Pastors)”이라는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 루터는 학교를 세 등급의 반으로 나누었는데, 첫째, 읽기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동들의 반으로 알파벳, 주기도문, 사도신경 및 다른 기도문을 읽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그들은 중세에 알려졌던 교재인 Aelius Donatus (B.C 4c)의 *Ars grammatica*와 Publius Valerius Cato(B.C)라는 두 가지의 책으로 읽기와 쓰기를 배우고, 음악을 배운다.

56) 홍정수(1988), 전계서, pp.33~34.

둘째, 읽기를 할 수 있고 더 상세한 문법 연구를 위해 준비하는 반이다. 그들은 음악, 이솝의 우화, Peter Mossdlanus (A.D 1493-1524)의 Pedagogia Erasmus의 저작집으로 부터 선집, Terence(B.C 190?-159?)의 저작, Plautus(B.C 254-184)의 몇 가지 우화, 기독교 교리, 그리고 성경의 부분을 배운다.

셋째, 라틴문법을 학습한 학생들의 반으로 그들은 음악을 공부했고, Vergil, Orid, 그리고 Cicero를 공부했고 작문, 변증학과 수사학을 배웠다.⁵⁷⁾

이렇듯 각 등급의 반마다 음악교과를 필수적으로 정했을 정도로 교육내용 중 음악교과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루터의 음악교육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하나님과 인간과 국가에 대한 봉사
- (2)젊은이들의 신앙과 인격과 도덕 교육
- (3)인간의 정서적, 감정적 발달
- (4)음악의 유익한 활용
- (5)충분한 음악감상
- (6)찬송가 습득

이와 같은 음악교육 목적 및 효과를 위하여 루터는 처음으로 학교 교과 과정에 음악 및 찬송을 포함시켜서 정규교육과정인 되게 하였으며, 교사들이 필수적으로 바이올린과 노래를 익히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음악적 재능을 강조하였고, 특히 합창음악교육의 필요성에 지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는 많은 대중이 음악을 통해 교육을 받도록 권장하였으며 군주들과 임금은 음악발전과 음악교육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고 주장

57) 김명일(1985), "M. Luther의 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p.38.

하였다. 그리고, 성직자의 목사안수 때에도 음악교육을 연수하지 않은 성직자는 안수를 허락하지 않았을 정도로 성직자들에게도 음악을 신학과 동등하게 연구해야 할 것임을 요구하였다.⁵⁸⁾

3) 루터의 코랄(Chorale)

(1) 코랄의 정의

코랄(Chorale)이란 용어는 다음과 같다. 형용사로서 코랄(Choral)은 합창단이나 합창에 속한 것이고 반면에 명사로서의 코랄은 찬송가의 선율이나 종교적 선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코랄(Chorale)이라는 단어는 독일 개신교회의 찬송으로 사용되는데, 독일 사람들이 마지막 음절에 엑센트를 붙여 코랄(Choral)이라고 부르는데서 일반적으로 쓰는 영어의 형용사인 코랄(Chorale)과 혼동하기 쉬운 것이다. 또한 전례적 노래로서 이 용어는 두 가지로 정의 할 수 있다.

첫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례적 찬트(chant)인데 칸투스 코랄리스(Cantus choralis), 그레고리안 찬트(Gregorian chant), 플레인 찬트(Plain chant), 플레인 송(Plain song)등으로 불려진다. 둘째는 독일 개신교인 루터교 찬송가를 지칭한다. 이것은 특히 종교개혁 당시의 독일 찬송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코랄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2) 루터 코랄의 발생

58) 심정아(1993), “Martin Luther의 음악사상과 Luther 찬송의 음악교육적 배경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p.38.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개신교 루터교가 생겨났고 루터의 지도 하에 독일어로 된 회중찬송(Chorale)이 탄생하게 되었다. 종교개혁당시 가톨릭 교회의 예배음악은 성직자와 성가대의 전유물이었고 회중찬송을 부를 기회가 없었다. 루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과 같은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평민들의 언어로 회중찬송을 만들어서 예배시에 모든 신자들이 다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랐다. 독일어로 된 찬송은 이미 종교개혁 이전3, 4세기부터 독일에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런 찬송들은 예배에서보다는 축제나 기념일 혹은 특별한 교회 행사나 사적인 모임에서 불러 졌고 엄격한 제한 속에서 평민에게는 가끔 허용되는 상황이었다.⁵⁹⁾ 루터에게 있어서 평신도들의 회중찬송은 “살아있는 복음의 소리(Viva vox evangelii)”와 같았다. 그래서 루터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자국어 찬송을 만들게 되었고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자유롭게 찬송할 수 있는 길을 열게된 것이다.

4) 코랄의 특징

(1) 가사

루터가 새로운 찬송을 다시 써야할 필요를 느낀 것은 그 당시 불리워졌던 대부분의 찬송가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드리는 찬양이었거나 혹은 성자의 반열에 있는 죽은 자들에 대한 찬양이었으므로 모든 찬송가가 본래의 찬송가의 사명을 다하는 위치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1523년 이후 루터는

59) 강명신(1991), 전계서, pp.18 ~ 19.

찬송시를 직접 썼는데 그 찬송시를 구성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라틴(Latin)어로 된 시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

둘째는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에 대중이 알고 있던 찬송시를 개편, 확대한 것.

셋째는 시편을 운문화 한 것.

넷째는 시편 외의 성경 구절을 운문화 한 것.

다섯째로 스스로 창작한 시를 들 수 있다.

가사의 내용 면에서 살펴보면 루터는 “우리구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 것도 노래하거나 말할 것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가르친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는 말씀에 따라 복음적 신앙에 따른 것이다. 그의 음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한 가사가 대부분이었고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루터의 찬송가사는 예술적으로 잘 다듬어 지거나 섬세한 시적 언어로 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거칠고 투박하면서도 침투력이 있는 평민의 언어로 썼으며 구원의 진리를 객관적이면서도 신앙고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⁶⁰⁾

또한 루터의 찬송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들어내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찬송이 되었다. 이런 면에서 루터의 찬송가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훌륭한 찬송가사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위대한 찬송가라고 불리는 ‘내주는 강한 성’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60) 상계서, pp.23~24.

1절 우리 하나님은 강한 요새시오
결코 실패함이 없는 성채시라
범람하는 인간악의 홍수속에서
우리를 돕는 자시라
우리의 옛 원수는 여전히
우리에게 화를 줄 길을 찾고 있고
그의 간교와 힘은 크며
잔인한 증오로 무장하였네
이 땅위에 그를 당할자 없도다.

2절 우리의 힘만으로 싸우려 하였다면
우리편에 옳은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의 싸움은 패하였으리라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의 이름 만군의 주시오
대대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며
그가 싸움을 이기시리라

3절 비록 이세상이 마귀로 꺾차서
우리를 멸하겠다고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의 진리가 이기게 하시니
우리는 겁내지 않으리라

어둠의 왕은 무시무시해도
우리 떨지 않으리니
그의 노함 우리 참을 수 있음은
보라, 그의 죽을 운명이 분명함이라
한 작은 말씀으로도 그는 넘어지리라.

4절 그 말씀이 세상 모든 권세에는 달갑지 않으나
그들 위에 지속하도다
우리 편에 계시는 주를 통해서 오는
성령과 은사는 우리의 것이라
재물과 친척 놓아주고
이 육신 생명도 가계 두노니
육신은 저들이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여전히 지속하네
주의 나라 영원하도다 아멘.

이 찬송가사는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싸움이 절정에 이른 1529년에 시편 46편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루터의 담대하고 적극적인 신앙의 면모가 잘 나타나 있다.

(2) 리듬

루터의 코랄에 있어서 음악적 특징 중 하나는 리듬의 생동력 (rhythmic vitality)을 들 수 있다. 같은 길이의 음표로 되어있는 코랄(Isometric

Chorale)은 17세기 중엽에 나타난 것이며 루터의 찬송곡조‘내 주는 강한 성
이요(EIN FESTE BURG)’의 원래 리듬은 불규칙하여 생동감이 있었다.

<도표-2> 악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Psalm 46
Martin Luther 1528

Ein fe - ste Burg ist un - ser Gott,
Er hilft uns frei aus al - ler Not,
ein gu - te Wehr und Waf - - fen der
die uns jetzt hat be - trof - - fen
alt - - se Feind mit Ernst ers jetzt meint;
groß Macht und viel List sein grau - sam Ru - stung
ist, auf Erd ist nicht seins glei - - chen

자료: 조숙자·조명자(1988), 찬송가학,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p.60.

또한 코랄 리듬의 특징 중에는 대체로 신앙의 찬송(Hymns of Faith)은 악
구(phrase)가 짧은 음표로 시작이 되고 명상찬송(Hymns of Prayer)은 긴 음
표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 좋은 예로 ‘새 노래를 부르자(Ein neues Lied
wir heven an)’의 악보인데 7개의 악구가 모두 짧은 음표(8분 음표)로 시작

이 되고 시편 130편을 기초로 만든 찬송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노라(Aus tiefer Not schrei ich zu dir)’는 명상과 기도의 찬송으로 긴 음표로 시작하는 것을 다음의 악보를 통해서 볼 수 있다.⁶¹⁾

<도표-3> 악보. 새 노래를 부르자

Ein neues Lied wir heben an

Martin Luther, 1523
(1483-1546)

Ein neu-es Lied wir he-ben an, das walt' Gott un-ser Her-re,
zu sin-gen, was Gott hat ge-tan zu sei-nem Lob und Eh-re,
Zu Brus-sel in dem Nie-der-land wohl durch zween jun-ge Kna-
ben hat er sein wun-der macht be-kannt, die er mit
sei-nen Ga-ben so reich-lich hat ge-zie-ret

자료: 상계서, p.61.

61) 조숙자·조명자(1988), 「찬송가학」,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pp.60~62.

<도표-4> 악보.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노라

Psalm 130 Martin Luther 1524

1. { Aus tie-fer Not schrei ich zu dir, Herr
Dein gnä-dig Oh-ren kehrt zu mir und

Gott, er - hör mein Ru - sen.
mei-ner Bitt sie öf - - - sen; } denn so du

willst das se - hen, was Sünd und Un-recht

ist ge - tan, wer kann, Herr, vor dir blei - ben?

자료: 상계서, p.61.

(3) 선율

루터가 몇 개의 코랄을 작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곡조들은 이미 존재하던 노래에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차용된 곡들이다. 루터가 코랄의 선율을 차용한 재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인된 라틴어 찬송가, 라틴 씨퀼스(Sequence)에서 나온 곡과 가사, 그리고 Plain song(Gregorian chant).

둘째는 세속적 노래의 선율.

셋째는 종교개혁 이전의 대중적 찬송과 민요.

넷째로 예배를 위해 특별히 작곡된 선율.⁶²⁾

위의 네 가지 근원으로 보아 루터의 코랄은 일부만이 독창적인 것이고 대부분의 선율은 가톨릭 교회의 성가나 중세의 씨퀼스, 독일의 대중곡에서 따온 것이다. 세속노래나 세속적인 다성작품을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채택하는 것은 16세기에 흔히 있는 일이었다. 바로 이러한 곡을 콘트라 팩타(Contrafacta) 또는 패로디(Parody)라고 한다.

그 예로는 이삭(Heinrich Isaac)의 리이트(Innsbruck, ich muss dich lassen)에서 채택한 ‘오 세상이여, 나는 그대를 떠나야 하노라 (O Welt, ich muss dich lassen)’이다. 이보다 후대의 작품의 예로는 하슬러(Hans Leo Hassler)의 리이트 ‘내 마음의 평화는 부드러운 아가씨의 매력에 의해서 흔들리도다 (Mein Gemüt ist mir verwirrt)’로써 이것은 1600년 경에는 종교적인 가사 ‘내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차네(Herzlich tut mich verlangen)’에 붙여졌다가 나중에는 ‘상하신 성스러운 그 머리(O Hauptvoll Blut und Wunden)’에 붙여졌다. 이와 같이 그 당시 세속가곡이 코랄의 많은 멜로디를 제공한 것을 알 수 있다.

루터가 새로이 작곡한 창작 찬송은 다음과 같다.

- (a) Christ lag in Todesbanden(1524)
- (b) Christ unser Herr zum Jordan kam(1541)
- (c) Ein neues Lied wir heben an(1523)
- (d) Erhalt uns, Herr, bei deinem Wort(1542)

62) 이유선(1990), 전게서. p.82.

- (e) Jesus Christus unser Heiland, der den Tod(1524)
- (f) Nun freut euch, lieben Christen gmein(1523)
- (g)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1535)
- (h) Vom Himmel kam der Engel Schar(1542)⁶³⁾

(4) 화성

코랄은 원래 전원이 유니슨(Unison)으로 불렀으므로 화성(Harmony)이 없었지만 루터파 작곡자들은 일찍부터 코랄에 다성음악을 붙이기 시작하였다. 루터의 중요한 음악 협동자였던 요한 발터(Johann Walter, 1496-1570)는 1524년에 5개의 모테트와 함께 38개의 코랄 편곡이 들은 책 「비텐베르크 성가곡집」을 출판하였다. 이것이 최초의 코랄 다성곡집이다. 이 모음집은 재판됨에 따라 라틴어 모테트의 비중이 커졌다. 123곡의 다성 코랄 편곡과 모테트를 갖는 중요한 모음집은 독일 루터 교회의 주도적인 음악 출판자인 게오르크 로오(Georg Rhaw, 1488-1548)에 의하여 1544년에 출판되었다. 발터의 책과는 달리 16세기 초반의 독일과 스위스의 모든 주도적인 독일인 작곡자들의 작품을 수집한 것이다.

16세기의 코랄편곡들의 양식은 상당히 다양했다. 어떤 것은 옛 독일 리이트 기법을 사용하여 평이한 코랄 곡조는 긴 음표를 테노르에 놓고, 독립적인 동기를 사용하여 모방이 거의 없는 세 개 이상의 자유롭게 흐르는 성부들이 감싸서 다성 음악을 이룬다.

또한 어떤 것들은 프랑코, 네덜란드의 모테트와 비슷하여 코랄의 모든 성부가 모방적으로 발전된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거의 수직화음적인 단순한

63) 강명신(1991), 전계서, pp.30~31.

양식으로 되어있다.⁶⁴⁾ 유명한 코랄 선율은 소프라노에서 불러졌고 하삼성이 약간 폴리포닉(Polyphonic)하게 얹혀져 있다. 이러한 단순한 코랄 편곡에서 바하(J.S Bach)의 대 코랄 환상곡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⁶⁵⁾

(5) 선법성

루터의 가장 중요한 음악적인 공헌중의 하나는 코랄 제작에 있어서 독창적으로 이오니아 선법(Ionian Mode)를 사용한 것이다. 루터는 그 당시 가장 진보적인 음악이론에 까지 손을 대어 중세의 8개 교회선법을 12개로 확대하는 것을 통해 오늘날의 장조와 단조(Tonality)을 낳게하는 업적을 남겼다.

앞에서 제시한 악보들 ‘Ein feste Burg’와 ‘Ein neues Lied wir heben an’ 그리고 ‘높은 하늘에서 내려 오셨네 (Vom Himmel hoch da kom ich 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Vater unser im Himmelreich)’는 루터의 가장 개성적인 찬송으로 모두 이오니아 선법(C장조)으로 되어있다. 루터는 중세 이론을 잘 알고 이를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마이스터징거(Meistersinger)의 음악적 전통을 채택하고 확대하여 사용하였다. 그의 자작 찬송을 위해 새로운 선법을 사용했던 루터는 당대에 음악이론적인 면에 있어서 선구자적 위치에 있었다.⁶⁶⁾

(6) 악곡 형식

루터 코랄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소절형식(bar form)을 들 수 있다. 마이스

64) 김진균 외 역 (1984), 전게서, p.281.

65) 권종렬(1984), 「합창음악의 역사」. 풍진출판사.p.193

66) 조숙자조명자.(1988), 전게서. p.62.

터 징거의 소절형식을 도입하여 가사의 체계적 규칙과 음악적 악구(phrase) 처리를 하였다. 한 악구와 그 반복의 간단한 변형인 소절형식은 전반구(Stollen)와 후반구(Abgesang)의 종결대비 부분들로 이루어지는데, 소절형식(AAB)의 A부분을 전반구라하고 후반구를 B부분이라 칭한다. 가장 간단한 형식은 AAB구조로써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식은 다음과 같다.

<도표-5> 악곡형식

	(Stollen)	(Abgesang)
<1>반복소절형식 (Repetition Bar form)	II: a - b :II	c - a - b
<2>연속소절형식 (Serial Bar form)	II: a - b :II	c - d - e
<3>반복 연속소절형식 (Repetition serial Bar form)	II: a - b :II	c - d - a - b

자료: 강명신(1991), 전계서, p.39.

위와 같은 소절형식은 루터가 코랄을 만드는데 사용했을 뿐 아니라 루터 전후 음악개혁자들도 역시 사용하였다.⁶⁷⁾

67) 강명신(1991). 전계서. pp.39~41.

V. 루터 음악의 의의와 영향

1. 루터 음악의 의의

1) 교회음악의 대중화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교회의 예배음악은 성직자나 성가대만이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예배음악의 가사를 라틴어로 사용하므로 중세시대의 그레고리가 극복하지 못한 가사의 대중화를 실현하였다.

루터는 종교개혁 초기부터 완전히 라틴어를 배제한 것은 아니었으나, 아무런 뜻도 모르고 미사에 참석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여 라틴어 찬송을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또한 세속 선율이나 민요 선율에 복음적인 새로운 가사를 붙여(Contrafactum)사용함으로써 교회음악과 민속음악을 조화롭게 하였다.

그 당시 대중들의 음악의 선율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교회음악의 대중성 뿐 아니라 민족성을 엿볼 수가 있다.⁶⁸⁾ 루터는 가사의 장벽을 허물고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회중찬송(Chorale)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예배의식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여 귀로만 방청하였던 성도들이 직접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귀로 듣고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유계층만의 음악일 수 없었다.

68) 신화철(1993), “대중적 교회음악의 이해와 수용”, 석사학위 논문,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p.43.

2) 만인 제사장설의 실현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교회의 미사는 라틴어로 집행하였고 일반 성도들은 외면 당한채 교황과 사제들만이 찬미하여 교권주의를 내세우고 위엄을 들어 내었다. 루터는 이들에 대해 대항하여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였다.

이 내용은 성경에 나타난 보편적 사제직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성도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며 일반 성도나 제사장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루터는 이와 같은 주장에 근거하여 교회음악도 역시 교황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며 자유롭게 찬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2. 루터 음악의 영향



1) 교회 음악적 측면

루터가 교회음악에 공헌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보면 첫째, 교회에 배음악의 개혁과 둘째, 코랄을 통한 교회음악상의 공헌을 들 수 있다.

(1) 교회 예배음악의 개혁

루터의 예배개혁 운동은 성서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자유로운 신앙과 초대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려는 운동이었다. 그가 이루어 놓은 예배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⁶⁹⁾

69) 전희준(1990), “마르틴 루터의 음악 사상이 종교개혁에 끼친 영향” 『교수논문집』, 제 1호, 대한기독교 신학대학 출판부. pp.23~24.

첫째, 자국어로 예배를 구성하며 형식보다는 내용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예배순서에 성도들이 자유롭게 참여토록 하였다. 특히 회중찬송 부르기 예배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만들어 교인들이 직접 예배 진행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성경봉독 외에 설교순서를 삽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큰 비중을 두었다.

넷째,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달리 해석하여 가톨릭 교회의 화체설(Transubstantiation)에 대한 의미를 수정하여 새로운 공재설(Doctrine of Consubstiation)을 수립하였다.⁷⁰⁾

그가 개혁해 놓은 예배순서의 내용은 1523년에 펴낸 ‘미사전례’와 1526년에 펴낸 ‘독일어 미사’에 나타나 있다.

‘미사전례’는 라틴어 미사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의식을 채택하여 만든 형식적이고 의전적인 예전으로 라틴어·제복·촛대·십자가 표시·성체봉대식등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수도원과 대성당에서 행해졌다.

‘독일어 미사’는 형식과 내용을 알아듣기 쉬운 독일어로 번역하고 수정 보완하여 내놓은 새로운 미사전례이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예배 자료를 독일 성도들의 특수성에 맞게 한 것인데 교육받지 못한 서민층과 농민을 위해서 독일어 사용을 권장하였으며 독일어 회중찬송을 넣어 성가대와 교인들이

70)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祝聖) 기도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각각 전질변화(全質變化) 할수 있다는 가톨릭 교회의 주장에 반대하고 루터는 그리스도의 편재성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실체와 빵은 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신체는 지금도 역시 빵의 실체 안에 현존하고 있어 빵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두산동아(1996), “성찬논쟁” 「두산세계대백과사전(제15권)」, p.275.

적절히 나누어 부르게 하였다.

‘독일어 미사’에서의 루터의 제안은 입제문을 위한 낭송하는 음조의 새로운 형태를 발전시켰고, 여러개의 옛 키리에(Kyrie)가락들이 조금 변경되어 지켜졌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조(Credo), 거룩(Sanctus), 승계송(Gradual), 하나님의 어린양(Agnus Dei)과 같은 예배의 각 부분들을 독일 찬송으로 대체한 것이었다. 또한 일과(lessons)와 집도문(Collects)을 위한 낭송 음조는 독일어로 어울리게 재작업 되었다.

새로 만든 미사전례의 순서 중에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음악순서이다.

“예배에서 음악 이상으로 사용된 다른 분야의 예술이 없고”와 “음악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병행하고 있다”는 루터의 음악관은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되었던 것이다.

루터는 회중찬송을 독일어로 불러서 종교적 헌신을 교인들이 스스로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어 광범위한 회중찬송의 사용을 위해 이것을 예배의식에 통합하였으며, 자신의 신학적 강조점을 회중찬송에 표현했다. 여기에서 그의 공헌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옛 음악형태를 취해서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영감을 갖게 한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⁷¹⁾

<도표-6> 중세의 미사전례와 루터의 예배순서 비교

자료: 이귀자 역(1990), 전게서, pp.76~78. pp.127~128.

71) 이귀자 역(1990), 전게서, pp.113~116.

	중세의 미사전례	루터의 예배
1	성직자가 입장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말한다.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나 독일어 시편
2	시편 42편을 암송(킹. 제임스 번역은 43편)한다.	키리에 엘레이존
3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기도를 드린다.	기원(Collect)
4	간단한 가도를 드리고, 그에 대한 응답이 따른다.	서간경(Epistle)
5	초입경(Introit)을 부른다.(시편에서 발췌한 짝맞은 구절)	회중찬송
6	성가대가 Kyrie eleison, Christe eleison을 부른다.	복음(Gospel)
7	성가대가 Gloria in excelsis Deo를 부른다.	독일어로 된 사도신경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회중이 찬송
8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축문(매일 조금씩 다름)이 말해진다.	설교
9	Graduale라고 불리는 성시 즉, 서간경이 낭독되거나 혹은 알렐루야나 트락투스(Tractus)가 불려지고, 보통 이어서 시퀀스(Sequence)라고 불리는 찬송이 따라 나온다.	주기도
10	다음에 지정된 복음서를 낭독한다.	성례전을 위한 준비
11	설교(생략할 수 있음)	성례전의 의미에 대해 설명
12	성가대가 Credo를 노래한다.(Credo는 589년의 스페인과 1014년의 로마 예배로 그 기원을 더듬어 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오늘날의 크레도가 확립되었다.	떡을 분배
13	시편에서 몇 구절을 읽고 제헌물(offertory)-빵과 포도주-가 준비된다.	교인들이 독일어의 쌍투스나‘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
14	성찬예식이 시작된다.(빵과 포도주를 기도와 의례서와 함께 준비한다.)	잔을 분배
15	감사와 찬양의 송영이 바쳐진다.(이것을 서문경(Preface)이라 부르며 계절에 따라 다르나 송영은 반드시 성가대가 부르는 Sanctus와 Benedictus로 끝난다)	독일 찬송가 아뉴스 데이(신의 어린양)나 독일 쌍투스를 부른다.
16	이제 미사의 정경(Canon)이 시작된다. (이 정경은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참석한 모든이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성직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빵과 포도주는 모인 사람들의 깊은 경배의 대상이 된다.	감사의 헌금
17	빵과 포도주(host&chalice)가 바쳐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가대가 Agnus Dei를 부른다. 성직자는 성체를 전달하고 고백과 사죄로 정결해진 회중은 성체를 받는다.	축복(폐회)
18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까지를 읽으므로 예배를 마치게 된다.	

(2) 코랄을 통한 교회음악상의 공헌

독일 개신교 교회음악에 있어서 코랄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다.

코랄은 코랄 칸타타, 코랄 모테트 등의 합창곡과 코랄 전주곡, 코랄 변주곡 등의 오르간 곡의 기초가 되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전반은 코랄 편곡의 전성기로 크뤼거(Johann Cruger, 1598-1662) 이후 더욱 복잡한 코랄들이 에카르트(Johan Eccard), 프레토리우스(Michael Praetorius)와 쉴츠(Heinrich Schutz)에 의해 만들어졌다. 또한 바하(J.S. Bach)의 수난곡과 칸타타에서 코랄이 비로서 일반 성도가 성가대와 함께 참여하는 조화있고 훌륭한 찬송가의 선율을 띠게 되었다. 바하의 코랄들은 엄격히 말해서 코랄편곡이라 할수 있는데 그는 잘 알려진 찬송가 선율을 골라서 그것의 불규칙한 리듬을 제거하여 정교한 화성체로 만드는데 뛰어났다.

이와같이 프레토리우스에서 바하에 이르는 독일의 개신교 음악은 코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 있다.⁷²⁾

흔히 종교개혁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내주는 강한성’은 현재 많은 교파들의 찬송가 가운데 실려있으며 170여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또한 후에 이 코랄을 바하는 교회 칸타타 80번의 테마로, 이른바 그랜드 오페라의 일인자로 불리는 마이어베어(Giacomo Meyerbeer, 1791-1864)는 그의 오페라 ‘신교도’에, 멘델스존(Mendelssohn)은 ‘종교개혁’ 교향곡으로 바그너(Wagner)는 ‘황제 행진곡’중의 중요한 테마로 사용했다.

이와 같이 코랄은 예배에 사용된 찬송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후세의 작곡가들에게 교회음악의 정선율을 제공하였다. 즉 바로크시대 교회음악의 성

72) 조숙자·조명자(1988), 전게서. p81

악과 기악에 있어서 기본선을 역할을 하였다.

2) 음악교육적 측면

음악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한 교육자는 루터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볼 때 그의 음악교육적 공헌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루터가 음악교육에 끼친 공헌으로는 교육적 목적의 찬미가집을 출판함으로써 그 당시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 음악교육 발전에 강한 자극을 주었으며, 당시 음악교육 상황은 음악을 통한 인격 및 정서의 교육적 가치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루터는 음악이 인간의 정서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주장하고 학교에서 음악을 정규교육과정으로 채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것을 무척 강조하였음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루터의 주장은 현대음악교육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예배에서 음악사용을 권장하고 최초로 찬송을 학교에서 배우게 하고 성직자들에게도 음악을 필수적으로 연수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각 신학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교에서 교회음악학과가 설립될 수 있었던 데에 루터의 영향이 강하게 끼쳤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루터의 합창음악교육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협동심과 단체훈련을 위해 합창 및 교내 합창대회 등을 필수적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볼 때 현대 합창음악교육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⁷³⁾

73) 심정아(1993), 전계서, p39.

3) 음악사적 측면

루터의 중요한 음악적 공헌은

첫째, 코랄 제작에 있어서 이오니아 선법을 사용한 점이다. 16세기에 교회선법은 교회음악과 세속음악의 양면에서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장조나 단조의 조성으로 향하는 경향은 많은 작곡가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루터는 그 당시 가장 진보적인 음악이론에까지 손을 대어, 그의 자작 찬송을 위해서 새로운 선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그는 중세의 8개 교회선법 이외에 새로운 선법을 추가하여 사용함으로써, 바로크 시대에 있어서 장조나 단조의 조성에 관한 근대적 개념이 성립되는 것에 한 몫을 담당할 결과를 가져왔다.

루터가 죽은지 1년 후인 1547년에 간행된 스위스의 클라레아누스(Glareanus, 본명 Heinrich Loris, 1488-1563)는 그의 음악이론서 「도데카코르돈」(Dodekachordon, 12현)에서 종래의 8개의 교회선법 이외에 에올리아, 히포에올리아, 이오니아, 히포이오니아 등 4개의 선법이 더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필요성을 제창하여 교회선법을 12개로 확대시켜 당시 작곡가들의 실정에 맞도록 하였다.

둘째, 루터의 영향 아래 있었던 독일적 음악관에 있어서 작곡에서 중심적인 것은 언어(가사)였다.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라는 그의 신학관에 기인한다.

이러한 루터의 음악관은 100년 후에 그의 뒤를 잇는 쉴츠(H.Schutz)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쉴츠의 전 작품은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로 된 성서 및 신비스럽고 종교적인 시를 가사로 채택해서 지극히 심오한 교회음악의 절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의 작곡에서 중심적인 것은 역시 언어(가사)였다.⁷⁴⁾

셋째, 오늘날 교회음악은 물론 모든 서양음악의 바이블(Bible)처럼 불리는 위대한 음악가 바하의 불후의 명작들도 종교개혁의 음악적 산물인 코랄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 빛이 더해감도 코랄의 종교적 역사성에 기인된다 하겠다.

코랄은 그레고리안 찬트처럼 높은 예술적 기초를 형성하고, 화성적 음악으로 서양음악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으며 바로크 교회음악의 주된 장르인 코랄 칸타타, 모테트 그리고 오르간 음악이 화려하게 빛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74) 홍정수(1988), 전계서, p.280.

VI. 결론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 (sola scriptura, sola gratia, sola fide)⁷⁵⁾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권적 신앙에 반기를 들어 교회를 개혁하였다.

루터의 신학 사상은 성서의 절대 우위성, 은총에 의한 구원관, 만인사제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사상은 음악에도 영향을 주었다.

소수 특권층인 성직자와 훈련받은 성가대의 전유물이었던 가톨릭 교회의 음악을 일반 성도들에게 보편화 시켰고, 그 결과 회중찬송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이전의 로마 가톨릭의 그레고리안 찬트 그리고 예로부터 독일에 전해지고 있는 민요와 가곡에서 예배에 적합한 것을 발췌하여 편곡하거나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 개신교를 위한 회중찬송, 즉 코랄(chorale)을 만들었다. 코랄은 교회 음악의 대중화와 만인사제론의 실현이었으며 루터의 교회 예배음악의 개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루터의 교회 음악의 공헌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회 예배음악을 개혁하였다.

루터는 회중 찬송을 독일어로 불러서 종교적 헌신을 교인들이 스스로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어 광범위한 회중 찬송의 사용을 위해 이것을 예배의식에 통합하였으며, 자신의 신학적 강조점을 회중 찬송에 표현했다. 여

75) Martin Kitchen(1994),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독일사(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Germany)」 유정희 옮김.(2001), 시공아크로총서3, p.101.

기에서 그의 공헌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옛 음악 형태를 취해서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영감을 갖게 한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코랄을 통한 교회 음악상의 공헌이다.

코랄은 코랄 칸타타, 코랄 모테트 등의 합창곡과 코랄 전주곡, 코랄 변주곡 등의 오르간 곡의 기초가 되었고, 예배에 사용된 찬송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후세의 작곡가들에게 교회 음악의 정선율을 제공하였다. 오늘날 교회 음악은 물론 서양 음악의 바이블(Bible)처럼 불리 우는 위대한 음악가 바하의 불후의 명작들도 종교 개혁의 음악적 산물인 코랄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 빛이 더해감도 코랄의 종교적 역사성에 기인된다 하겠다.

셋째, 음악교육에 영향을 준 것으로 루터는 교육적 목적의 찬미가집을 출판함으로써 그 당시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 음악교육 발전에 강한 자극을 주었으며, 음악이 인간의 정서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주장하고, 학교에서 음악을 정규교육과정으로 채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것을 강조하였음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루터의 주장은 현대 음악 교육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음악사적인 공헌으로 코랄 제작에 있어 이오니아 선법을 사용한 점이다. 그는 중세의 8개 교회선법 이외에 새로운 선법을 추가하여 사용함으로써, 바로크시대에 있어서 장조나 단조의 구성에 관한 근대적 개념이 성립되는 것에 한 몫을 담당할 결과를 가져왔다. 코랄은 그레고리안 찬트처럼 높은 예술적 기초를 형성하고, 화성적으로 서양음악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루터는 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해 나가면서 교회음악을 개혁하였다. 이러한 루터의 교회음악 연구를 통하여 두 가지의 현대적 의

의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는 루터의 삶 자체를 통한 교훈이다.

종교의 기능을 제사적 기능과 예언자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볼 때 그 당시 루터는 사제로서 제사적 기능에 안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부패되고 속화(俗化)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야 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한국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종교의 예언자적 역할의 필요성이 더해 가고 있지만, 기복신앙과 개인주의로 일관되어 사회제반 문제에 침묵과 무관심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 개신교 교회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는 루터의 음악을 통한 교훈이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 교회가 발전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던 코랄이라는 음악적 형태를 통하여 회중과 기독교를 밀착시킨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루터는 음악의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신학적 강조점을 나타냄으로써 그 시대 정신을 이끌어 나갔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 안에서도 찬송에 대한 성도들의 다양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루터처럼 음악을 통하여 시대적 정신을 구현해 나갈수 있는 교회 음악인의 자세와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개신교의 교회 음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회 음악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회의 예배음악 지도자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루터가 성직자들에게 신학과 음악을 동등하게 연구해야 할 것임을 요구한 것처럼 신학과 음악을 겸비한 교회음악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루터의 음악을 고찰함으로써 변화를 초래하였던 루터의 위대한 사상과 교회음악에 끼친 그의 영향을 되새겨 보고 한국 개신교 음악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루터의 음악이 더욱더 깊게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 문헌

- 권종렬(1984), 「합창 음악의 역사」, 풍진 출판사.
- 김문자·노영해·박미경·이석원·허영한(1998), 「들으며 배우는 서양 음악사」, 심설당.
- 김상배(1993), 「성경에 계시된 교회음악」, 엘멘출판사.
- 김흥기(1996), 「세계기독교의 역사이야기」, 예루살렘.
- 배한국(1993), 「루터와 종교개혁」, 컨콜디아사.
- 백병동(1997), 「교양의 음악」, 도서출판 벽호.
- 안춘근(1969), 「출판 사회학」, 통문관.
- 이동윤(1979), 「세계사 개론」, 일지사.
- 이성삼(1983), 「서양음악사」, 남해 문화사.
- 이유선(1990), 「기독교 음악사」, 기독교문사.
- 조숙자·조명자(1988), 「찬송가학」,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 지원용(1983), 「루터와 종교개혁」, 컨콜디아사.
- 지원용(1983), 「루터 선집」, 제9권, 컨콜디아사.
- 지원용(1983), 「말틴 루터」, 컨콜디아사.
- 홍세원(2001), 「서양음악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 홍정수(1988), 「교회 음악 개론」,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 홍치모(1983), 「종교개혁사」, 성광문화사.
- Donald Jay Grout(1973), 「서양음악사 (A History of Western Music)」. 김진균·나인용·이성삼공역(1984), 세광음악 출판사.
- Erik H.Erikson(1958), 「청년 루터(Young Man Luther)」, 최연석 역(1997),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H.M.Miller(1987), 「새 서양 음악사」, 최동선 역 편, 현대악보출판사.
- Martin Kitchen(1994),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독일사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Germany)」, 유정희 옮김, 시공사아크로 총서3.

- Roland H. Bainton(1978), 「마틴루터의 생애(A Life of Martin Luther)」, 이종태 역(1984), 생명의 말씀사.
- Russel N. Squire, 「교회음악사(The History of Church Music)」 이귀자 역(1990), 호산나 음악사.
- Ulrich Michels(1977), 「음악은이 (Dtv-Atlas Zur Musik)」, 홍정수·조선우 편역(2000), 음악 춘추사.
- W. Walker(1982), 「기독교회사」 류형기 역 편, 한국기독교 문화원.
- 강명신(1991), “Martin Luther 의 Chorale이 교회음악에 끼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광태(1990), “말틴루터의 종교개혁 사상 형성배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 김명일(1985), “M. Luther의 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대학원.
- 김수진(1989), “John Calvin의 교육사상”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종진(1982), “루터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화철(1993), “대중적 교회음악의 이해화 수용” 석사학위논문, 감리교 신학 대학교 신학 대학원.
- 심정아(1993), “Martin Luther의 음악 사상과 Luther 찬송의 음악교육적 배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은주(1991), “역사적 측면에서 본 M. Luther와 그의 찬송이 가지는 의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대학원.
- 양춘근(1997), “종교개혁이 교회음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신학대학교 대학원.
- 이광희(1986), “말틴루터의 종교개혁과 종교음악”,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 대학원.
- 이형기(1984), “종교개혁 신학사상”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 대학원.
- 전희준(1990), “마르틴 루터의 음악 사상이 종교개혁에 끼친 영향” 「교수

- 논문집」, 제1호, 대학기독교 신학대학 출판부.
- 조일구(1987), “루터의 교육사상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 현익부(2001), “종교개혁 과정에 나타난 루터의 교육사상”,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정자(1991), “루터찬송의 배경과 그 변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 「신약성서(1990)」, 아가페 출판사.
- 두산동아(1996), 「두산세계대백과사전」(제15권).
- 서문당(1975), 「컬러판세계백과대사전」(제12권, 제15권).
- 세광음악대사전 편찬위원회(1982) 「음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 음악대사전 편찬위원회(1973), 「음악 대사전」, 신진출판사.



<Abstract>

A Study of Luther's Music
-centered on church music-

Joe, Hyeon-jeong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Jung-hee

The religious reformation, which is one of the things that had greatly changed the flow of world history, did not just mean that it just resisted Catholic churches' corruption and degradation. In the real sense, the religious reformation meant that it fundamentally reformed Service.

Luther earnestly felt most the necessity of congregational hymn, which everybody can sing in the church, as he had led the religious reformation movement, and this comes to appear as the musical form, Chorale.

This study has an objective that it has a new understanding of Luther, not as a religious reformer but a musician or church music reformer, and considers the meaning that Luther's Chorale has as a church music of Protestantism and its influence on the musical history.

Thus, to consider Luther's church music in Chapter II, this study considered first Roman Catholic church music - especially Gregorian chant - from the standing point that Luther's church music was reformed from the existing Roman Catholic church music, and it also considered German mundane music and church music at that time, which are thought to have influenced Luther's

music.

In Chapter II, it studied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religious reformation by dividing it into background of times, background of religious reformation and background of musical history, and in Chapter IV, it mentioned in detail Luther's life and theological ideology, Luther's view on music, music education and Luther's music, Chorale, and in Chapter V, it mentioned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Luther's music, and finally it made a general conclusion by considering the meaning that his music has in modern times.

Luther had generalized Roman Catholic church music, which was exclusively possessed by the privileged minority, churchmen and the trained choir, to the common followers, and as a result, the congregational hymn came to appear. For this, he extracted the proper things for Service from Roman Catholic Gregorian chant and the folk songs and songs that had been transmitted in Germany from the old times, arranged or made new melodies, and thereby he made the congregational hymn for Protestantism, that is, Chorale.

Chorale was the popularization of church music and the realization of the idea that all men are priests, and it became the motive power that developed Protestantism churches by closely tying congregation to Christianity. In addition, it has a great meaning in that it gave birth to several forms of new church music, for example, church music such as Chorale Cantata, Chorale Motet and Chorale Prelude and organ music and so on, by providing posterity composers with "Cantus firmus".

Through the language of music, he led the spirit of the times by emphasizing the absolute superiority of Bible, the salvation by grace and the idea that all men are priests, which consist of his theological ideology.

Today, the followers' various needs for hymn are also arising in Korean Protestantism churches. Under this circumstances, church musicians' attitudes and efforts that can realize the spirit of times through music like Luther must be one of their missions, and therefore the study of Luther's music may be meaningful.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 2003.